

마오쩌둥의 군사전략과 클라우제비츠

I. 서론

마오쩌둥(毛澤東)은 초기 중국공산당 전략노선의 실패를 교훈 삼아 ‘농촌 중심’, ‘병력보존’에 초점을 맞춘 혁명전쟁전략을 만들었다. 마오쩌둥의 전략은 단순한 유격전 전략으로 적을 끌어들이고 후퇴한 후 약화된 적을 차례차례 집중로 공격하여 궤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후에 ‘16자 전법’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적이 진격하면 아군은 퇴각하고, 적이 피로하면 아군은 공격하고, 적이 주둔하며 아군은 교란하고, 적이 퇴각하면 아군은 추격한다”는 것이었다.¹⁾ 이 전략은 1930년 말부터 장제스가 추진한 다섯 차례의 소공전(掃共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했고, 후에 지구전 전략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은 특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데 연연하지 않으면서 적의 약한 부분에 대한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었다.²⁾

마오쩌둥은 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손자와 레닌, 클라우제비츠 등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레닌의 사상을 습득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³⁾ 이후 직접 읽고 연구하면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1935년 말 옌안에 도착한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이론적으로 만들면서 <전쟁론> 축약본을 읽었다.⁴⁾ 이후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 “지구전에 관해 논함”이다. 결과적으로 평가되는 이 글을 근거로 클라우제비츠 연구자들은 마오쩌둥의 전략에 클라우제비츠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후 마오가 공식적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생각을 채택했다고 한 것은 ‘유격전에 관하여’에서이다.⁵⁾ 그러나 마오의 저작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것은 그보다 앞선 1929년 12월에 출간된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하는 일”에 대해(关于纠正党内的错误思想)에서 발견된다.⁶⁾

마오가 클라우제비츠를 접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마오는 다른 나라의 전략이나 군사교범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발을 신에 맞추는 것과 같아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⁷⁾ 클라우제비츠의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재정의해 그의 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이 글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을 간략히 개관하고, 군사전략과 관련된 마오의 저작들에 포함된 내용들, ‘중국의 혁명전쟁에서의 전략 문제’, ‘항일 유격전쟁에서의 전략 문제’, ‘지구전에 관하여 논함’, ‘전쟁과 전략 문제’ 등에서 클라우제비츠와 유사점이 보이는 부분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오가 보다 더 발전시킨 내용을 살펴본다.

II.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

1806년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패배를 당한 이후 <전쟁론> 집필에 들어갔다. ‘전쟁의 본질’에

1) 毛澤東選集 1, p.204.

2)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363-364.

3) 박창희, 현대중국전략의 기원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p.72.

4) 毛澤東哲學批注集 (北京: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輯、中央文獻出版社, 1988), pp.282-283

5) Mao Zedong,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Praeger, 1961),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Samuel B. Griffith, p.49.

6) 毛澤東選集 1, pp.85-96.

7) Stuart Schram, “Mao Tse-tung and Liu Shao-Ch’i, 1939-1969,” *Asian Survey*, 12/4 (1972), p.277.

관해 결작을 쓰고자 했지만, 미완성본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나마 1권 1장 “전쟁이란 무엇인가” 부분은 클라우제비츠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다듬고 완성했던 부분이기에 이를 토대로 다른 부분의 모순을 바로 잡아가며 이해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답을 제시했다. 우선 전쟁이란 “대규모 형태의 결투”로서 “적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폭력행위”라고 정의하고,⁸⁾ 그 전쟁의 목표는 적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전쟁은 “도박”으로서 확률(probability)을 따지고 우연(chance)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셋째,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으로 정치적 행위이며 정치적 의도가 전쟁의 목적이고 전쟁이 바로 그 수단임을 밝혔다.⁹⁾ 끝으로 “전쟁은 카멜레온과 같다”¹⁰⁾면서 각각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소위 국민, 군, 정부의 기묘한 삼위일체(trinity) 구성에 따라 전쟁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삼위(三位)에 대해 첫째, 국민과 연관된 증오와 적대감의 폭력과 격정을, 둘째, 군대와 관련된 용기, 결단력, 재능 등의 개연성과 우연의 도박, 그리고 셋째,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도구라는 종속성 등을 제시했다.

이 4가지 답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과 전략에 대해 갖고 있던 몇 가지 생각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먼저 전쟁의 목적과 수단과 관련해서 클라우제비츠는 적을 무장 해제시키는 데에는 적극적 목적(파괴)과 소극적 목적(보존)이 있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두 가지 목적은 언제나 함께 진행 된다. 그것들은 상호작용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한 두 개의 부분이다. 따라서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더 우세할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연구하기만 하면 된다.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려는 노력은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 목적의 마지막 목표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또한 아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것은 소극적인 목적이며 적의 의도의 파괴, 즉 순수한 저항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마지막 목표는 행동의 기간을 늘려 적을 지치게 만드는 것 외에 달리 있을 수 없다.”¹¹⁾고 언급한다. 바꿔 말해 적극적 목적은 적을 파괴하는 것이고 적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소극적 목적은 아군의 보전을 위해 싸우고 적을 항복시킬 기회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파괴와 보전 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을 제압하려는 목표는 동일하다.

둘째,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 ‘확률’과 ‘우연’의 전쟁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적, 정신적 역량, 사기, 정신력과 자신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를 직접적으로는 ‘정신적 요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전쟁 천재’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천재 개념은 비범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능력과 감정도 해당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우리는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천재 그 자체에만 논의를 국한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군사적 행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신력과 성격의 모든 재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진 것이 군사적 천재의 본질이다.”¹²⁾

셋째,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했듯이 클라우제비츠는 정치와 전쟁의

8) Clausewitz, *On War*, p.75.

9) *Ibid*, p.87.

10) *Ibid*, p.80.

11) *Ibid*, p. 98.

12) Clausewitz, p.100.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치적 목적이 전쟁행위에서 정하는 목표에도 적용된다.”¹³⁾ 면서 정치적 목적 없는 전쟁은 무의미하다고 하고, 모든 전쟁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전쟁은 정치적인 교류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면서 중국에는 “군사적인 관점이 정치적인 관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¹⁴⁾

넷째, 인민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인민의 무장’(인민전쟁)을 언급한다. “인민의 용기와 신념이 국력, 군사력, 전투력을 만들어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보여준다고 강조한다.¹⁵⁾ 그는 “무장한 인민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처럼 적군의 기반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국민전쟁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1) 전쟁이 국가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2) 전쟁이 단 한 번의 전투(stroke)로 결판나지 않아야 한다. (3) 전투지역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4) 인민의 성향이 인민전쟁에 부합해야 한다. (5) 산, 숲과 늪지대 혹은 경작방식으로 인해 국가에 단절된 지형과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아야 한다”¹⁶⁾ 등을 제시했다.

다섯째, 방어에 강점을 얘기한다.¹⁷⁾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시간이 충분한 측은 전쟁에서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공간이 충분한 측은 일시적으로 공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공격하는 측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효용이 줄어든다. 바꿔 말해 방어하는 측은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결전을 치르게 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적의 기세를 줄이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적에게 결정타를 가할 반격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하는 측은 공격하는 측이 원하는 결전에 임해서는 안 되며, 적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한다. 결국 방어하는 측은 현재의 불리한 결전을 회피하면서 차후의 유리한 결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그리고 방어하는 측이 이점을 갖게 되었을 때 전략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클라우제비츠는 유격대의 운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열정, 광적인 열의, 신념 등의 민족적 기상을 갖춘 군대는 소규모 혹은 병사 개인 단위로 분산되어 싸워야 하는 산악지대나 교통이 불편한 지형에서 잘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산악 지형이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¹⁹⁾ 또한 유격전의 수행 조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적 점령군의 중심점 대신 적군의 전력이 약한 전장의 변두리에서 소규모 공격을 수행하고, 고립된 적군의 일부가 울창한 삼림지대, 다리, 길을 지나갈 때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비정규 부대는 한적한 지방에 편성되어야 하고, 무장한 민중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적군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비정규 부대는 적을 기습하려면 전력을 특정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규군 같은 조직을 갖추려 해서는 안

13) *Ibid.*, p.87.

14) *Ibid.*, p.605.

15) *Ibid.*, p.220.

16) *Ibid.*, p.480.

17) 약 2,000년 전 손자는 “전쟁터를 선점하고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안하고, 전쟁터에 늦게 도착해 전투에 투입되는 군대는 피로하다. 따라서 전쟁에 능한 지휘관은 적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끌어들이지 적이 원하는 장소로 끌려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방어의 강점을 강조한 바 있다.

18) Clausewitz, p.357.

19) *Ibid.*, p.186.

되며 계속 작은 집단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일곱째, 클라우제비츠는 결전의 회피와 전쟁의 지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국력이 열세하고 약한 측이 사기나 지구력과 인내력과 같은 요인이 강할 수 있고, 막강한 측도 항상 약한 상대방보다 더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²⁰⁾ 여기에서 결전의 회피를 언급하는데, 결전(decisive battle)은 두 개의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방어하는 측이 빠른 속도로 진지를 포기하고 철수할 수 있다면 공격하는 측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결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다.²¹⁾ 결전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격의 정점(culminating point)이다. 공격의 정점이란 공격하는 측의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후부터는 방어하는 측과 공격하는 측의 전투력이 서로 역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경우 공격의 정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쟁에서 정확한 공격의 정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III. 마오쩌둥의 이론과 클라우제비츠

(1) 전쟁의 목적

마오는 전쟁을 “인간들 상호 간의 도살을 의미하는 괴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전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또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²²⁾ 즉 전쟁은 다른 전쟁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인민전쟁은 절대전쟁이었다. 마오는 적의 궤멸과 아군의 보존을 인민전쟁의 본질이자 목적으로 보았다. 그는 “전쟁의 목적은 ‘아군을 보존하고 적군을 궤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을 궤멸시킨다는 것은 적을 무장해제하거나 ‘저항하는 힘을 적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지 적을 몰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²³⁾ 이는 클라우제비츠가 소극적 목적과 적극적 목적으로 구분해서 전쟁의 목적을 다룬 것과 유사하다.

마오는 전쟁을 국가나 정치집단 간의 이해의 충돌로 보고 그러한 충돌을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적의 궤멸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즉 “자기를 보존하고 적을 궤멸시킨다는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본질이고 모든 전쟁 행동의 근거이다. 본질은 기술적 행동으로부터 전략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 행위들에 관철되어 있다.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기본 원칙으로서, 모든 기술적, 전술적, 전역적, 전략적 개념이나 원칙도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²⁴⁾는 것이다.

전쟁은 각각의 병력이 상대를 궤멸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유혈을 초래하고, 전쟁의 성격은 평화적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적을 궤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 물리력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제의 전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마오는 “전쟁의 목적에 있어서 적의 궤멸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 보존은 이차적이다. 왜냐하면 적을 궤멸시켜야만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라고 설명했다.

20) Clausewitz, pp.221,803

21) 물론 클라우제비츠는 공격하는 측이 얼마든지 결전을 추구할 수 있고 방어하는 측은 이를 회피할 수 없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Ibid.* pp.245-246.

22) 毛澤東選集 1, p.174.

23) 毛澤東選集 2, p.449.

24) 위의 책, pp.449-450.

25) 毛澤東選集 2, p.450.

(2) 정신적 요소

마오는 “전쟁은 다른 어떤 사회 현상보다도 그 원인을 포착하기 어려우며 확실성이 더 적다는 것, 즉 이른바 ‘개연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²⁶⁾ 공간과 시간의 차이, 인민들 간의 갈등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전쟁은 저마다의 특성을 갖고 전쟁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마오는 전쟁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불확실성이 온전한 지식을 얻기 어렵게 만들어 군사적 조건과 작전의 실수와 패배를 가져온다고 한다. 마오는 이러한 특수성과 개별성을 설명하기 위해 클라우제비츠를 인용한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 쓰기를, 모든 시기의 전쟁은 독립적인 형태를 갖고 독립적인 조건을 갖기에 모든 시기별로 전쟁 이론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이유로 마오는 전쟁과 관련된 국가의 선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쟁의 독특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전쟁은 중국 고유의 환경에서 감행되기에 전쟁의 보편 이론과 비교했을 때 독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어떤 외국의 이론도 중국의 이론도 기계적으로 항일전쟁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전쟁에서 핵심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가능한 한 잘 부합시키는 데 있다. 승리를 원할 때 지휘관은 이처럼 제한된 환경 아래에서도 승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마오에 따르면, 지휘관의 올바른 자질은 바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바른 결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판단은 주도면밀한 검토와 그 검토를 통해 모아진 다양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숙고로부터 나온다. 사령관은 모든 검토 방법을 채택해 적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해 숙고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알짜만을 선택하며, 거짓을 제거하고 참을 남긴다. 그리고 하나하나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사령관은 그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양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²⁸⁾

이러한 생각은 클라우제비츠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을 실제의 사건에 적용한 중요한 분석은 이론과 실제 간의 차이를 줄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사실에 맞게 만든다.”²⁹⁾ 그리고 그는 이론과 실제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전쟁에서의 정신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전쟁론에서 그는 “정신적 요소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속한다. 그 요소들은 전쟁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핵심을 구성하고 초기 단계에서 전병력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의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의지 자체도 정신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 역사는 정신적 요소의 중요성과 믿을 수 없는 효과를 잘 보여준다.”³⁰⁾

클라우제비츠는 정신적 요인이 전쟁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마오도 인간역학을 그의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본다. 인민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추론은 마오의 이론 전반에 나타나는데, 가령 “무기는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결정적 요소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역량 대비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대비이기도 하지만 인력과 인심의 비교이기도 하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결국 사람들이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³¹⁾라고 했다.

26) 위의 책, p.458.

27) Mao Zedong, On Guerilla Warfare,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Samuel B. Griffith (New York: Praeger, 1961) p.49.

28) 毛澤東選集 1, pp.179-181.

29) Clausewitz, p.156.

30) Ibid, p.184.

31) 毛澤東選集 2, p.437.

이처럼 사람의 정신력은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마오는 인민의 역학을 강조한다. “자각적 능동성은 인류의 특성이다. 인류는 전쟁에서 이런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 전쟁의 승부는 물론 쌍방의 군사·정치·경제·지리·전쟁의 성격·국제적 원조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단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승부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그것들 자체로 승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주관적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곧 전쟁을 지도하고 진행하는 것이며, 전쟁에 있어서의 자각적 능동성이다.”³²⁾이라고 한다.

마오는 인민의 자각적 능동성이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에서 기능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에게 정신력이 물리적 힘을 압도할 수 있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고자 했다. 마오는 국가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활용하고자 했다. 마오는 정신적 요인들이 항일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 막강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마오는 클라우제비츠처럼 군사적 열세를 정신력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3) 전쟁과 정치의 관계

마오쩌둥의 군사전략을 보면, 우선 정치와 군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는 전쟁을 정치와 군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전쟁의 정치적 속성은 군사적 성격을 결정한다. 전쟁에서 모든 활동은 정치적 목표를 지향한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론가들이 여기에서 해야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전쟁을 하는 양쪽 국가의 지배적인 정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힘과 운동의 중심이 되는 명확한 중심점이 만들어지며, 모든 것은 그 중심점에 달려 있다. 또한 모든 전투력의 공격도 적의 중심점에 집중되어야 한다.”³³⁾ 이러한 중심점은 국가의 정책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군사 행동의 토대라는 것이다. 적의 패배와 궤멸은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마오는 항일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설명하면서 동일한 접근을 취한다. 마오의 관점에서 당시 항일전쟁은 국민전쟁이고 승리는 일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다는 전쟁의 정치적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중국의 항일전쟁은 국민당 정부의 지도 하에 있고, 군사적 목적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된다. 그는 “항일 전쟁을 지향하는 각급의 지도자들은 중일 양국 간에 서로 대립된 각종 기본요인을 떠나서 전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전쟁의 이러한 목적을 떠나서 전쟁을 지도할 수 없다. 양국 사이의 서로 대립되는 각종 기본 요인이 전쟁 행동 가운데서 전개되면, 서로 자기를 보존하고 적을 궤멸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된다. ... 적을 부분적으로 궤멸시키는 이런 성과들을 반복하면 큰 전략적 승리를 이루게 되어 ... 적을 우리나라로부터 궁극적으로 몰아내고 ... 새 중국을 건설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³⁴⁾라고 한다.

마오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인용한다. 그는 “전쟁은 정치이고 전쟁 자체는 정치 행위이다. 자고로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는 전쟁은 없었다.”³⁵⁾라고 한다. 모든 전쟁은 정치와 분리할 수 없고 인민은 특정한 정치 목적을 위해 싸운다. 그 정치 목적은 군사 목적이기도 하다. 정치는 핵심 분야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건설하고 대중을 동원해야 한다. 전쟁에 대한 정치의 우위와 정치에 대한 전쟁의 종속은 마오쩌둥의 이론에 있

32) 위의 책, pp.445-446.

33) Clausewitz, pp.595-596.

34) 毛澤東選集 2, p.451.

35) 위의 책 2, pp.446.

어 중요한 특성이다. 마오는 정치가 전쟁의 핵심이며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점에서 마오의 전쟁과 정치에 대한 접근은 클라우제비츠의 패턴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클라우제비츠는 역시 전쟁과 정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목적 없는 전쟁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목적이 전쟁행위에서 정하는 목표에도 적용된다.”라고 하고, “전쟁은 정치적인 교류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 전쟁에 완전히 전쟁만 있고 전쟁은 다른 수단이 섞여 있는 정치적인 교류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³⁶⁾라며, 전쟁이 정치적인 교류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정치는 이성이고 전쟁은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관점이 정치적인 관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³⁷⁾

마오는 전쟁과 정치가 공존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마오와 클라우제비츠는 유사하다. 마오는 적을 파괴하고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전쟁이라고 본다. 이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은 마오의 정치사상의 핵심주제가 되고 그의 나머지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이는 중국의 항일전쟁의 독특한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그에게 있어 항일전쟁은 전쟁의 군사적 목표는 정치적 목표와 분리될 수 없는 모든 중국인들의 혁명전쟁이다. 이 전쟁의 주된 관심은 구국(救國)이었다. 공산당원 마오에게 있어 그 전쟁은 일본을 중국에서 몰아내는 것과 국민당 정부를 내쫓는 것 두 가지 목표를 갖는 전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마오는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³⁸⁾라고 결론 내린다. 이는 마오의 사상에 있어서 일생 동안 주요하게 남았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힘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닮았다. 마오는 혁명은 영구적이고 전쟁은 세계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인간 사회에서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의 이론에서 보면, 통합과 분리는 전쟁과 정치의 관계에 남는다. 그것들은 서로 충분히 침투하고 반대한다.

사실 적의 궤멸을 목표로 한 전쟁은 정치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 전쟁의 정치적 요소는 전쟁을, 전투를, 교전을 지배한다. 한편 특정 교전의 특성은 이러한 일반 원칙을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전장의 모든 측면이 최종적인, 정치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와 전쟁의 이러한 이중적이지만 통합된 성격은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임을 보여준다.

(4) 인민의 정치적 동원과 인민전쟁

마오쩌둥은 열세한 전력을 갖고 승리하기 위해 인민대중의 에너지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전쟁전략을 추구했다. 마오는 항일전쟁에 인민을 활용했다. 마오는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인민의 정치 동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인민을 “적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망망대해”³⁹⁾라고 하고, 인민의 정치적 동원을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인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일상적 동원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민전쟁의 전략은 마오쩌둥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한국전쟁도 인민전쟁의 승리라고 강조할 만큼,⁴⁰⁾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이 개념은 정강산(井岡山)에서 투쟁하던 시기부터 1930년대 후반 항일전쟁, 그리고 중국내전 등을 겪으면서 계속 발전되었다. 이 인민전쟁 역시 클라우제비츠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클라우

36) Clausewitz, p.605.

37) *Ibid.*, p.605.

38) 毛澤東選集 2, p.447

39) 위의 책, p.448.

40) 毛澤東軍事文選 6 (군사과학출판사·중앙문헌출판사, 1993)

제비츠는 전쟁의 삼위일체(trinity)를 제시하며 ‘인민’의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작전 지역의 주민 한 사람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강을 흐르는 한 방울의 물보다 더 보잘 것 없는 효과를 내는 데 지나지 않지만, 민중봉기와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주민들이 전쟁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결코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⁴¹⁾고 한다. 특히 방어 전쟁에서 인민의 통합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인민의 지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힘을 축적시켜줄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인민의 지원의 중요성을 스페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스페인에서처럼 인민 스스로 인민전쟁을 통해 이 싸움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는 단지 인민의 도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⁴²⁾

클라우제비츠는 “아직까지 적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국민은 적에 대항하려고 할 것”⁴³⁾이고, 그러한 무장 국민들은 기습 후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식으로 적을 괴롭힐 것이고 공격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인민전쟁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들보다 대체로 우위에 있을 것”⁴⁴⁾이라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마오는 전쟁에 가담하는 인민의 정치적 동원이 항일전쟁에 있어 우선적이라고 본다. “전쟁 위력 중 가장 심후한 근원은 민중이다. 일본이 우리를 업신여기게 된 중요한 원인은 중국민중이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결함을 극복한다면 일본침략자들은 우리가 꺾기한 수억만 인민 앞에서 마치 불바다에 뛰어든 들소처럼 우리의 한마디 고함소리에도 크게 놀라게 될 것이며, 이 들소는 불 속에 타죽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⁴⁵⁾라고 인민의 동원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마오는 모든 중국인민의 통합이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강한 역지가 될 것이고, 그러한 역지는 적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이고, 한편으로 최종적 승리를 위해 싸우려는 인민들에 대한 격려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1회성이 되지 않도록 의식화가 대중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했다.

마오의 입장에서 인민의 역동적인 역할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에서 나타난다. 마오는 심리적인 힘이 물리적 힘을 압도한다고 보았다. 국가 전체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마오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활용하고자 했다. 마오는 심리적 요인들이 항일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막강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처럼 마오는 군사적 열세를 심리적 힘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5) 방어의 강점 이용

마오쩌둥이 지구전이나 인민전쟁에서 사용한 전략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마오쩌둥은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 방어를 취함으로써 적이 추구하는 불리한 결전을 회피하고, ‘방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피아 군사력 균형이 유리하게 변화되도록 상황을 조성했으며, 오직 적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달성한 후에만 공격으로 전환해 결전을 추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마오쩌둥과 클라우제비츠의 인민전쟁 수행에 대한 시각은 전략과 전술에 있어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전략에 있어서 마오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주된 전쟁의 형태는 방어이고 지구전이었다. 또한 전술에 있어 적을 괴롭히고, 적을 패퇴시킬 기회를 기다리는 내용도 공유하고 있다.

41) Clausewitz, p.373.

42) *Ibid.*, p.373.

43) *Ibid.*, p.481.

44) *Ibid.*, p.479.

45) 毛澤東選集 2, pp.478-479.

마오쩌둥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소화해서 한 단계 더 실전적으로 만들어 냈다. 그는 모든 혁명전쟁에 인민대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정규군의 보조수단으로 보았지만 그 내용을 클라우제비츠보다 더 실전적으로 제시했다. 마오는 인민의 무장, 즉 유격대의 조직을 강조한다. 마오는 “16세에서 45세까지의 모든 성별의 인민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항일자위대로 조직되어야 한다.”⁴⁶⁾고 했고, 이러한 인민무장의 확대는 자위대, 유격대, 정규군 등 세 가지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중국 인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약하지만 일본의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미 소공전(掃共戰)을 통해 나타난 마오쩌둥의 전략은 첫째, 국민당 군대와 직접적인 전투를 회피했다. 마오는 적의 군사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대결은 무모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리한 도시공격을 지양하고 농촌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여 홍군의 건설과 보존에 주력했다. 마오쩌둥의 전략은 적의 공격에 대해 무모한 결전을 회피하고 대신 16자 전법과 같이 적을 유인·분산시키는 전술을 펼쳐 고립되고 약화된 적만 골라 공격하는 것이었다. 또한 방어에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다. 기동방어를 통해 험준한 지형으로 적을 유인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었다. 마오쩌둥이 취한 전략적 퇴각은 적으로 하여금 험준한 산길을 따라 좁고 길게 늘어선대로 해 대규모의 적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홍군의 입장에서는 분산된 적에 대해 병력을 집중해서 상대적 우세를 점하면서 싸울 수 있었다.

(6) 지구전

마오는 인민을 지구전에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클라우제비츠의 방법을 종합했다. 즉 “어떤 정부도 자국의 운명과 생존을 단 한 번의 전투의 전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결정적인 전투라고 해도 그렇다. 한 번 패해도 새로 병력을 소집하고 적의 오랜 공격으로 적의 병력이 줄어들게 되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죽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 정부가 적에 비해 작도 약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노력을 아끼어서는 안 된다.”⁴⁷⁾며 독려했다.

또한 마오는 힘이 약한 중국에게 빠른 승리나 국가 정복을 강조하는 이론이 적합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국 간 힘의 차이를 무시하고 어느 일방의 장점만을 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국가의 축의 패배만을 생각하고 상대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오는 최종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방법을 지구전이라고 한다. 아울러 그는 “전국의 인민이 동원되면 적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망망대해가 이뤄지고 무기 등의 결핍을 메울 조건이 마련되며, 전쟁의 모든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된다.”⁴⁸⁾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인민전쟁의 전략은 ‘한 번의 단타’보다는 지구전을 전쟁 형태로 취한다. 따라서 인민전쟁의 기본 조건은 다섯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항일전쟁은 크지만 가난하고 뒤쳐진 국가인 반식민, 반봉건 중국 내에서 벌어진다. 둘째, 적과 비교했을 때,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빠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지리적으로 중국군이 기동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넓다. 넷째, 점증하는 저항력은 활용될 것이고 많은 인민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자 전선으로 모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효과적으로 지구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에 혁명기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46) Mao Zedong,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Praeger, 1961),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Samuel B. Griffith, p.80.

47) Clausewitz, p.483.

48) 毛澤東選集 2, p.448.

이러한 마오의 인민전쟁 방법은 마지막 요소를 제외한 4가지가 클라우제비츠가 국민전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들로 제시했던 것들 즉 “(1) 전쟁이 국가 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2) 전쟁이 단 한 번의 전투(stroke)로 결판나지 않아야 한다. (3) 전투지역이 상당히 넓어야 한다. (4) 국민의 성향이 국민전쟁에 부합해야 한다. (5) 산, 숲과 늪지대 혹은 경작방식으로 인해 국가가 단절되어 있고 부족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⁴⁹⁾과 일치한다.

마오의 지구전을 보다 세분화해서 전략적 방어, 전략적 대치, 전략적 공격 등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일본이 강한 국가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약하고 방어하고 있다는 점은 전쟁을 전략적으로 방어적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의 재정은 소진될 것이다. 사기, 전쟁 피로, 비관주의가 적부대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군은 적극적인 방어의 태세로 적을 공격할 기회를 기다린다. 마오의 “전략적 퇴각은 전력이 열세에 있는 군대가 우세한 군대의 공격을 맞아, 그 공격을 신속히 격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취하는 것으로, 우선 군사력을 보존하였다가 시기를 기다려 적을 격파하기 위해 취하는 하나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조치”이다.⁵⁰⁾ 이 단계는 결전을 회피하는 데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단순히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기습을 가하면서 물러나는 적극적 방어를 전략적으로 택한다. 이는 클라우제비츠가 방어를 단순히 저항하거나 인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점과 유사하다.⁵¹⁾ 또한 퇴각하면서도 적의 공격 기세를 꺾을 수 있게 운동전을 택했다. 적을 생소한 지형의 오지로 유인해 원하는 장소에서 약화된 적을 공격할 수도 있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적이 전략적 수비를 하고 아군은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일본의 병력 부족과 중국의 확고한 저항은 적이 점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중단하도록 만든다. 마오가 보기에 이 기간은 과도 단계로, 전체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환점이었다. 적의 공격의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유격전 중심으로 병력을 운용하고, 운동전과 진지전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⁵²⁾ 적이 공격해 오지 않기 때문에 퇴각이 불필요하며, 이미 확보한 거점을 이용해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활동을 한다. 중국에는 공격의 정점을 지나 반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전략적 반격을 가하며 결전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전투의 초기 형태는 기동전이지만 곧 진지전이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이 결전을 통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마오쩌둥은 “오직 결전에 의해서만이 적을 섬멸할 수 있고, 적의 세력을 소모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⁵³⁾고 했다. 아군의 유격전에 괴롭힘을 당한 적은 기세가 꺾여 방어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때가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다. “정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쟁을 고착시켜 전쟁절대주의자가 되려는 자가 있다면 잘못”이라면서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⁵⁴⁾

마오의 인민전쟁의 결과 세력균형이 깨어지고 중국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열위에서 우위로 바뀌면서, 일본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략적 방어와 공격 간의 관계에 있어 마오와 클라우제비츠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1812년) 러시아인들은 적의 공격력이 소진되고 방어가 거대한 에너지로 공격으

49) Clausewitz, p.480.

50) 毛澤東選集 1, p.203.

51) Clausewitz, p.74.

52) 毛澤東選集 2, pp.431-432.

53) 위의 책, p.475.

54) 毛澤東選集 2, p.447.

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자국의 심장부에 가장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줬다.”⁵⁵⁾ 마오는 이를 현재의 상황은 변화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중국이 이길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유격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례를 선택한다. 즉 “1812년 9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 러시아를 침공했다. 당시에 러시아는 약하고 준비가 미비한 군대는 집결되지 못했다. 러시아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격전을 수행하는 농부군의 파견이었다. ... 프랑스 군이 철수하자 ... 러시아 유격대는 뒤에서 길을 막고 반격을 가해 추격하고 패퇴시켰다.”⁵⁶⁾

IV. 결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1권 1장을 기준으로 <전쟁론> 전반에 나온 대표적인 개념들을 마오쩌둥의 군사전략과 비교한 결과 마오쩌둥과 클라우제비츠 간에 중첩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마오는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을, 또 적의 완전한 몰살이 아닌 의지를 꺾는 전쟁을 애기했다. 또한 정치와 전쟁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전쟁이 정치에 종속됨을 제시했다. 또한 불확실과 우연이 넘치는 전쟁을 중국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특히 인민의 역할을 강조해서 클라우제비츠 이후 인민을 재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로부터 발달된 인민전쟁의 전략은 마오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승리하는 전략으로 결전을 회피하고 반격을 기다리는 방어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위대, 유격대, 정규군 등 세 가지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중국 인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약하지만 일본의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오쩌둥의 군사전략에는 클라우제비츠의 것과 유사한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

물론 클라우제비츠와 비슷한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요새와 방어거점에 관해서는 클라우제비츠와 마오쩌둥의 견해가 달랐다. 클라우제비츠는 인민이 요새나 방어거점을 구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즉 “인민군은 안개나 구름 같아야 하며 어떤 곳에서도 저항하는 몸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군이 적정의 병력으로 인민군의 핵심을 공격하고 파괴하며 많은 포로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기가 약해진다. 모두 대세가 결정되었고 더 이상의 노력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인민은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는다.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안개는 어느 지점에서는 뽕뽕이 모여 한 번 강력한 번갯불이 번쩍일 수 있도록 위협적인 구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⁵⁷⁾고 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격렬해지는데 적의 후방에 거점이 없다면 투쟁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러한 종류의 요새화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민군은 전략 근거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과업을 달성하고 자신의 전력을 보존하면서 적을 섬멸해 몰아낼 수준으로 전력을 증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근거지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전략적 과제를 완수하고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존할 곳이 없다. ... 지원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빨치산 투쟁은 오래 지속되거나 확대될 수 없다.” 이는 소련의 교범이나 서구의 전략이론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신에 발을 맞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마오쩌둥의 기본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끝)

55) Clausewitz, p.220.

56) Mao Zedong, *On Guerrilla Warfare* (New York: Praeger, 1961),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Samuel B. Griffith, pp.58-59.

57) Clausewitz, p.803